

■ 예술영화에 푹 빠진 영화 마니아 할머니들



일흔을 훌쩍 넘긴 이영애·박담희·이화순·김정애(왼쪽부터) 할머니가 광주극장에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좋은 영화 관객 많아 졌으면...”

“오다기리 조가 나온 ‘도코타워링’ ‘메종 드 히미코’는 또 보고 싶던데.”

“음악이 멋진 ‘카펫 베토벤’이랑, ‘원스’가 참 좋았어.”

“인디 영화는 조금 재미없기도 하더라도, 하지만 열심히 한 흔적이 보여 칭찬해 주고 싶지.”

영화는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대화 내용이 아니다. 나이 일흔이 넘는 할머니들이 주고 받는 대화다.

일반 멀티 플렉스 극장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영화들을 상영하는 예술영화 전용관 ‘광주극장’의 단골 방문객 가운데는 올해 일흔 세살이 된 ‘박담희 할머니와 친구들’이 있다.

최근 극장에서 박담희와 친구인 이영애, 이화순 할머니, 후배 김정애(63) 할머니를 만났다. 이날 독일 영화 ‘타인의 삶’과 장물 감독의 ‘경계’ 두편을 본 할머니들은 다음에 또 만날 약속을 하나 둘 나누었다.

박 할머니 등에게 광주극장이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나만의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놓쳤던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는 보물 창고인 셈이다. 할머니들은 점심 시간 즈음에 만나 중국요리집에서 자장면 한그릇씩 먹거나 팔죽, 우동으로 요기를 하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극장을 찾아 ‘고정석’에 앉는다. ‘나이 들어 눈이 어그러서 하

기 때문에’ 2층 영사실 옆 제일 앞자리가 할머니들의 전용 좌석이다. 또 다른 영화관과 달리 한편의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주인 눈치 보가며’ 티켓 한장 가격으로 두편의 영화를 관람하기도 한다며 웃었다.

할머니들의 광주극장 나들이가 시작된 건 박

광주극장서 정기적으로 감상 2층 영사실 앞 첫줄 ‘고정석’ ‘색다른 영화’ 주위에 관람 권해

할머니 덕분이다.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을 좋아하는 박 할머니는 인터넷을 서핑하다 광주극장에서 ‘색다른’ 영화들을 상영한다는 걸 알았고, 친구들에게 관람을 권했다.

박 할머니는 두 번씩 보는 영화가 많다. 일단 먼저 관람한 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면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박 할머니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편. 특히 곡성에 살고 있는 김정애 할머니는 “형님이 권하는 영화는 무조건 보기 위해” 시외 버스를 타고 광주에 온다.

13일 인디 영화계에서 화제가 됐던 일본 영화 ‘카모메 식당’을 혼자 관람했던 박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웃음이 배시시 나오는 참 좋은 영화를 봤다”는 문자를 날렸다.

“일본 영화를 볼 때는 내가 일본말을 할 줄 아니까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아. 또 영화의 배경이 핀란드라 앉아서 핀란드 여행도 다녀왔지.(웃음) 참 좋더라구.”(박담희)

할머니들은 광주극장에 올 때마다 사람이 좀 더 많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인터뷰를 극구 사양하던 할머니들은 극장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자 인터뷰에 응했다.

“이 좋은 영화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 우리 젊었을 때는 광주에 동방극장과 광주극장 밖에 없었지. 통이고 살다가 여기서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하니 참 좋더라구.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 좋겠어.”(박담희)

할머니들은 앞으로도 극장을 자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극장 김형수 이사는 최근 들어 젊은 사람들은 물론 중장년 관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점차 영화 관객들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정상화 ‘개혁방안 대토론회’

총감독 선임·이사장 통합 격론

“광주 정체성 확립...지역 인재 육성 개혁도”

15일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 주최로 열린 ‘광주비엔날레 개혁방안 대토론회’에는 지난해 ‘신정아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광주비엔날레의 정상화를 바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술계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총감독 선임 과정의 검증 시스템 부재, 이사장 통합 등 조직 개편안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을 펼쳤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계원조형에 숭대학 이영철 교수는 ‘총감독 선정 방법과 재단 연구 기획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예술정책연구소’(가칭)를 신설, 감독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대해 참석자들은 투명한 감독 선임과 연구 기능 강화 측면에서 예술정책연

구소 신설을 필요하지만, 반면 15명 단 주체로 열린 ‘광주비엔날레 개혁방안 대토론회’에는 지난해 ‘신정아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광주비엔날레의 정상화를 바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술계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총감독 선임 과정의 검증 시스템 부재, 이사장 통합 등 조직 개편안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을 펼쳤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현이 교수는 “총감독을 누굴 뽑느냐도 중요하지만 비엔날레가 지역 내 인물을 키워내고 있는나와 문제가 더 시급하다”면서 “해외의 유명 비엔날레를 모방하지 말고, 광주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비엔날레를 만들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야 한다”며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개혁을 요구했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지형원 부위원장도 “미술사의 흐름에 밝고 이해가 빠른 젊은 기획자를 키우는 것이 총감독 선임과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다”고 주장했다.

명예이사장과 이사장이 공존하는 재단의 조직구조에 대해 경희대학교 박신은 교수는 “시장이 명예이사장과 이사장을 맡는 대신 외부 전문가인 문화 CEO를 선임해 예산·인사 등 실질적인 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재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와 해결책 등을 토대로 조만간 개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의 정상화를 위한 ‘광주비엔날레 개혁방안 대토론회’가 15일 오후 KT광주정보통신센터에서 열렸다.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亞문화전당에 국립현대미술관 설립 추진

조영택 조성위원장 “미술관 문화교류 촉매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설립하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은 15일 광주시 서구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건립사업이 진행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현대미술관을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재정부와 상의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이 확정됐지만 향후 연차별 계획 등을 통해 현대미술관 설

립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가 문공부에 건의한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안은 지난해 10월 확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국제 문화교류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프랑스 퐁피두 센터처럼 방대한 미술품을 갖춘 미술관이 필요하다”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품을 보유한 미술관 기능이

있어야 문화 교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 문화전당이 3만 5천평에 달하는 규모이므로 미술관을 설치할 공간은 충분하고 초기 투자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며 “문제는 미술품을 구입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며, 이는 결국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역과 국내 작품을 중심으로 컬렉션을 마련하는 것은 프랑스로부터 빌려오는 것보다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9일부터 민속놀이 체험행사

전통 민속놀이를 겨울방학의 따듯함을 날려보내자.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이기현)이 19일부터 3회에 걸쳐 ‘부모님과 함께하는 추억의 민속놀이’ 체험학습 행사를 운영한다.

‘연을 만들어 날리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19일에는 연 제작 전문가로부터 연의 유래와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을 직접 만들어 날려보낼 수 있다. 20일에는 동전과 한지를 이용해 제기를 만드는

‘제기를 만들어 차 보자’, 26일에는 팽이의 몸통에 오색을 칠해 노는 ‘팽이치기 시합’이 열린다.

각 프로그램별로 20팀씩 모집하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21일까지 시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521-904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banner for 'Happy Time 영화안내' featuring various theaters like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Seniors, and Jeil Cinema, along with movie posters for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미스트', '다밤에 걸린 사랑', and '미재킷'.